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11월 21일(月) : 주간회의(10시)
- 11월 23일(水) : 호남인물 사료 읽기 - 송사 기우만 행장(강사 : 김건우 교수)
(오후 6시 30분 / 한지산업관 202호)
- 11월 24일(木) : 전북지역 의병 사료 읽기 - 염재 야록(강사 : 김건우 교수)
(오후 6시 30분 / 한지산업관 201호)

■ 연구원 소식

- 한국고전학연구소·연구원, 호남인물·전북의병장 사료읽기 야간 강좌
: 11월 16일(水)에는 '호남인물 읽기'의 일환으로 『송사 기우만 행장』을, 17일(木)에는 '전북의병사료 읽기'의 일환으로 염재 조희제의 『염재야록』을 교재로 하여, 김건우 이사(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의 강의를 연구원 201호 강의실에서 있었습니다.

11월 16일(水)에 진행된 강의 내용은, 송사 기우만(奇宇萬) 행장을 강독하였습니다.

11월 17일(木)에 진행된 강의 내용은, 염재 조희제(趙熙濟)의 염재야록(念齋野錄)을 강독하였습니다.

※ 야간 강좌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매주 수, 목 18시 30분까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광복회 전북지부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2016.11.17)

연구원과 협약기관인 광복회 전북지부에서 2016년 11월 17일에 “제7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이 있었습니다. 기념식에는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을 비롯한 각 기관장 및 보훈단체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연구원 이강안 감사(광복회 전북지부장)의 순국선열의 날 약사보고가 있었고, 변주승 상임이사의 “염재야록으로 본 전북의 순국선열” 이라는 주제의 기념 강연이 있었습니다.



○ 45회 문화강좌 안내

- 강 사 : 노은실(연구원 회원) / 날 짜 : 2016.12.10.(토) 16시 / 장소 : 한지산업관 201호
 * 주제는 다음주 뉴스레터를 통해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 연구원 송년회 “도서나눔” 행사 안내

2016년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송년회가 2016년 12월 10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됩니다. 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서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서나눔” 행사는 회원 각자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상호 교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송년회에 참석하시는 회원께서는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1권 이상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의 종류는 대중서 및 교양서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전공서적과 같은 무거운 도서는 가급적 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 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 품

子夜吳歌(第3首)	자야오가(셋째 수)
長安一片月(장안일편월)	장안의 조각달
萬戶擣衣聲(만호도의성)	집집마다 다듬이 소리
秋風吹不盡(추풍취부진)	가을바람 끝없이 불어
總是玉關情(총시옥관정)	모두가 옥관 향한 그리움으로
何日平胡虜(하일평호로)	어느날에나 오랑캐 평정하고
良人罷遠征(양인파원정)	남께서는 돌아오시려나?

■ 작자소개

- 이백(李白, 701~762). 중국 당나라 때 시인으로 두보(杜甫)와 함께 '이두(李杜)'로 병칭되는 중국 최대의 시인이다. 두보가 시성(詩聖)이라 불리는 한편 이백은 시선(詩仙)이라 불린다. 이백의 시는 <산중문답(山中問答)> 등 1,100여 편의 작품이 현존하는데, 주로 낭만적인 성향의 시들이다. 시풍이 호방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언어 사용이 명쾌했으며, 그 사상적인 기반은 도교였다.

■ 감 상

724년 26세가 되던 해에, 이백은 원대한 꿈을 지니고 고향을 떠났다. 그리하여 동정호(洞庭湖)와 상수(湘水) 일대를 유람하고, 금릉(金陵)과 양주(揚州) 지방을 거쳤다. 장강(長江)의 물줄기를 따르던 이 여행길에서, 이백은 수많은 명승고적을 두루 구경하였다. 그리고는 남방의 안륙(安陸)에 머물게 되었다. 이때 이백은 남방의 새로운 풍광을 접하면서, 「자야오가(子夜吳歌)」를 네 수 남겼다. 「자야오가」란 기원 4세기경에 진(晉)나라의 자야(子夜)란 여인이 애절한 사랑 노래 「자야가」를 지은 데에서 유래한다. 그런데 진나라가 오(吳)나라의 영토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자야오가」라고도 불렸다. 이후로 많은 시인들이 「자야오가」의 곡에 맞도록 가사를 지어 노래로 부르게 하였다. 이백은 사계절로 구분하여 「자야오가」 네 편을 지었다. 이 시가 가을에 해당하는 셋째 수이다.

■ 도농상생

○ 호박고구마 판매 안내

연구원 전형윤 회원(한국고전학연구소 협동번역팀 연구원) 부모님께서, 안면도에서 직접 농사 지으신 순종 호박고구마입니다.

- 모래가 섞인 황토밭에서 자란 호박고구마입니다.
- 농약을 뿌리지 않고 가꾼 호박고구마입니다.
- 보관은 거실이나 주방에 놓고 드시면 됩니다.

호박고구마는 온도에 민감하여 섭씨 영상 5도 이하에 보관하면 썩기 시작합니다.



- * 10kg 한상자 24,000원, 2상자 44,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전주 시내권일 경우 배달해 드립니다.
- * 연구원에서 직접 오셔서 가져가시면 상자당 2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